

# 서사무가 <원턴강본পুর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 비교 연구\*

이 종 호  
(건국대학교 강사)

- I. 서론
- II. 인간과 신의 공존, 그리고 제재초복  
(除災招福)의 발원
- III. 인간계와 이계(異界)의 접속, 그 차이  
의 탈주선
- IV. 변형과 생성의 분열, 혹은 구비문학  
의 문화콘텐츠화 의의
- V. 결론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RF-2007-361-A00002).

## &lt;국문 요약&gt;

본 논문은 박봉춘 본의 <원턴강본푸리>와 이 본풀이를 차이화한 이성강의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서사적 소통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는 결국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자간의 서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문학의 문화콘텐츠화의 의미도 함께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박봉춘 본의 <원턴강본푸리>는 ‘오날’이 부모국인 선계(仙界) ‘원천강’을 찾아가 이미 옥황의 신직(神職)을 받들고 원천강을 다스리고 있는 부모를 만나 그 부모에게서 신직을 받아 자신도 옥황의 신녀(身女)가 되어 옥황의 명을 수행한다는 거시적 스토리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볼 때 <원턴강본푸리>는 무(巫)를 세습하는 입무의례(入巫儀禮)인 강신제(降神祭)의 내림굿에서 구연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서사무가이다. 또한 이 서사무가의 초점대상인 옥황의 신녀 ‘오날’이 인간계에 강림한다는 것은 강신제의 일반적 원리를 전제한다면, ‘오날’이라는 신을 접한 제주(祭主)를 통해 인간계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과 신이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역설적 세계의 소통방식이다.

한편,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원천강’에서 학 ‘야아’, 그리고 보라색 여의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오늘’이 여의주를 탐내는 사람들의 탐욕으로 여의주와 함께 이계의 물으로 떠밀려왔다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그리고 이무기 등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원천강을 찾아가 학 ‘야아’와 재회한다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은 탈육적이면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에게 도움을 주었던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그리고 이무기 등은 ‘오늘’과 접속함으로써 허상과 탐욕,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소망을 성취한다. 그래서 <오늘이>는 인간적 가치의 기원과 현대의 과학적 신화를 곱곰 회의하게 한다.

이러한 차이화는 사건을 무엇(누구)와 계열화했느냐에서 비롯한다. 곳과 계열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신과 접속하고, 이를 통해 인간계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발원하고자 하는 무가 <원턴강본푸리>와 이를 다시 다양하게 차이화하여 관객 혹은 독자 지향적인 애니메이션과 계열화함으로써 오락과 ‘인간적’ 가치의 생성을 꾀하는 영상예술 <오늘이>는 각기 다른 의미와 가치를 생성한다. 신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과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심방(무당)이 구연했던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에서 약 16분 20여 초의 애니메이션 <오늘이> 새롭게 살아 우리를 더욱 낯설게 하고 불가시적인 세계로 길을 열어주어 나의 표상이나 관념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듯, 동일자의 반복을 넘어 우리의 옛이야기를 이 땅의 모든 존재, 자연, 동물, 달 자매, 해 형제, 들판의 새,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배치시켜 탈지층화, 탈형식화할 수 있도록 추상하는 일, 이것이 옛이야기를 콘텐츠화하는 일의 일차적 의의일 것이다.

주제어 : 구비문학, <원턴강본푸리>, 애니메이션, <오늘이>, 서사적 소통, 원전(原典), 시물라크라, 차이화, 문화콘텐츠

## I. 서론

이야기는 소통한다. 소통하기 때문에 이야기이다.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소통하면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수없이 증화를 반복하여 증차를 만든다. 그 차이의 증차가 바로 이야기의 변형이고 생성이다. 이 변형과 생성의 과정이 소통이다. 소통은 결코 절대불변의 실체로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니체의 ‘영원회귀’가 <자기동일적인 것>의 회귀를 의미할 수 없듯이, ‘차이의 자기동일성, 차이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말하는 자기동일성’<sup>1)</sup>이다. 이때의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동일성에 종속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어떤 개념적 형태로도 환원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차이로서의 내적 차이’<sup>2)</sup>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어떤 사건 계열 내에 자리 잡음으로써만 의미로 화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서 고립되어서는 의미가 없게’<sup>3)</sup> 된다. 즉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계열화를 이룰 때만이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사건은 곧 의미 자체이다.’<sup>4)</sup> 그리고 ‘의미는 사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화, 삶, 정치 속에 있다.’<sup>5)</sup> 즉 그것은 기본적으로 욕망과 권력에 관계된다. 이 사건의 계열화가 곧 소통의 과정이며 의미 생성의 방법이다.

우리가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주목하

1)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112~113쪽.(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실, 42~43쪽.)

2) 민진영, 『질 들뢰즈의 문학론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1~22쪽.

3)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151~152쪽.

4)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한길사, 2000, 79쪽.

5)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154쪽.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의 시물라크라에 불과하다는 재현의 원리에 집착하여 그 차이와 생성을 사유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소통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실체화하여 ‘언어의 감옥’에 윤회하는 결과를 낳는다. 원전 역시 소통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증화하여 증차의 의미를 생성해내듯이 문화콘텐츠화한 시물라크라는 사건의 계열화가 빚어내는 차이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이것은 원전과는 다른 무수한 시물라크라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롭게 생성된 이야기로서의 시물라크라는 접속하고 있는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의 생성이 곧 차이의 생성이고 ‘차이의 생산에 주목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종류의 실체론적 사유에 대한 거부를 극한에까지 밀고 나가는 것’<sup>6)</sup>이다. 이렇게 볼 때, 원전과 시물라크라의 관계는 동일성과 유사성에 근거하는 재현의 관계가 아니라 차이화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역동적 상응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서사무가인 <원턴강본푸리(袁天綱本解)>는 구연자에 따라 박봉춘 본<sup>7)</sup>과 조술생 본<sup>8)</sup>이 있는데, 그 내용은 각각 상이하다. 1930년~1933년 사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채록된 박봉춘 본은 옥 같이 고운 ‘오늘’이라는 여자아이가 부모국인 원천강을 찾아가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자신은 옥황의 신녀가 되어 다시 인간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한다는 핵심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1961년 제주도 한경면 조수리에서 채록된 조술생 본은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고자 하니

6) 진은영, 「니체와 차이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10쪽.

7) 赤松智城秋葉 隆 共編, 『朝鮮巫俗의 研究 上』, 沈雨星 옮김, 東文選, 1991, 292~299쪽.

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613~614쪽.

나라에서 남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장독 속에 들어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나라에서 낸 피에 원천강이 넘어가 남편이 잡히게 되고, 잡혀가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원천강이나 보며 살라고 하여 부인 이름이 원천강이 되었다는 핵심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서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본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단지 결말 부분에서 원천강이 점서(占書)로 나오는 것이 공통될 뿐이다. 이성강의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박봉춘 본을 차이화하여 창작하였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원천강본풀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sup>9)</sup> 그 이유는 제주도에서만 두 번 채록되었고,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세습무가 급격히 감소하고 당국이 쇠퇴하면서 본풀이 구송 능력 등이 약화됨’<sup>10)</sup>으로써 이 본풀이가 현재 구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 본풀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강권용의 연구<sup>11)</sup>와 김혜정의 연구<sup>12)</sup>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강권용은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를 각 서사단위별 서사소를 제의와 관련지어 분석하면서 이 본풀이를 본토의 설화, 제주도 본풀이가 혼합되어 있는 이계여행담으로서 원천강을 점과 관련된 인물이나 점서(占書)로, ‘오늘’을 사주팔자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원천강본풀이>를 심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곳에

9) <원천강본풀이> 관련 대표적인 논문과 글은 다음과 같다.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혜정, 「제주도 특수 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제20집, 2010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 과 철학적 사유의 일고찰」, 『국어국문학』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 신동훈, 「신비의 세계를 찾아서」, 『살아 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 서대석, 「한국신화의 비교연구」, 『한국신 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서정오, 「오늘이」, 『우리 신 이야기』, 현암사, 2008 ; 정숙영, 「친절 하고 따뜻한 그녀」,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서대석 엮음, 휴머니스트, 2008 ; 조미라, 「세상을 품은 영원의 시간」, 『상상력의 미학, 애니메이션』, 한울, 2009.

10) 조성윤 외 2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231쪽.

11)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제20집, 2010, 251~277쪽.

서 불려진 본풀이로 보고 있다.<sup>13)</sup> 이 연구는 <원천강본풀이> 각 서사소와 설화의 관련성, 원천강의 의미와 ‘오늘’의 신격, <원천강본풀이>와 제의적 관련성 등을 치밀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사무가로서의 <원턴강본풀이>가 소통을 전제하는 담론체계로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역사문화적 조건 등의 소통 맥락적 측면에서 밝혀낼 수 있는 소통적 제의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김혜정은 원천강의 의미를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 혹은 책이자, 그러한 일을 돕는 사람(무당)’임을 전제하고, 박봉춘 본과 조술생 본을 제주도 설화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박봉춘 본을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남성의 구복여행담이, 자신의 운명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주는 여신의 좌정담’<sup>14)</sup>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두 편의 <원천강본풀이>를 제주도 설화와 비교분석하여 <원천강본풀이>라는 제명(題名) 아래 전혀 다른 서사단락과 여신(女神)이 나타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 역시 연행상황이라는 소통의 맥락적 측면을 간과하여 결론이 다소 피상적이고 오류를 범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외의 연구에서는 <원천강본풀이>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주인공 ‘오늘’의 여행 경험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박봉춘 본의 <원턴강본풀이>와 이성강의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서사적 소통과 차이화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서사체는 서사학적 이론을 정교화한 제랄드 프랭스(Gerald Prince), 리먼 캐넌(S. Rimmon-Kenan), 마이클 J. 툴란(Michael J. Toolan), 제라르 주네트(G rard Genette), 미케 발(Mike Bal) 등과 작가 또는 서술자의 관념적 태도를 시점

13)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4~42쪽.

14)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제20집, 2010, 267쪽.

이론에 포함시키고, 소통 이론을 정교화한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 웨인 C. 부드(Wayne C. Booth), 보리스 우스펜스키(Boris Uspensky), 랜서(Susan Sniader Lanser),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 로마 야콥슨(Roman Jakobson) 등을 거치면서 의미 생성적이고 의미소통 자체의 역동성을 지닌 언어수행의 관점에서 더욱 풍부하고 짙어진 의미를 띠게 되었다.

특히 원전과 콘텐츠화한 시뮬라크라의 관계에서는 그것들이 무엇과 계열화하느냐에 따라 의미 생성의 방법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사적 소통의 관점은 합당한 분석 방법이 될 것이다. <원턴강본푸리>가 곳과 계열화된 서사무가라면 <오늘이>는 그 서사무가를 현대의 애니메이션과 계열화한 담론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문화콘텐츠로서의 시뮬라크라의 관계는 유사성과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재현, 혹은 미메시스의 관계가 아니라 차이와 생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창조적 전복의 관계이다. 이럴 때만이 이야기는 소통하고 신화적 상상력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생성하는 지평이 된다. 이 연구는 결국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의 서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문학의 문화콘텐츠화의 의미도 함께 드러내 보일 것이다.

## II. 인간과 신의 공존, 그리고 제재초복(除災招福)의 발원

<원턴강본푸리>의 서사단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강님들에서 외롭게 나타나 연령과 낡은 날도 모르고 학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오날’이라는 이름을 지어줌.
- 2) 오날이 박이왕의 어머니인 백씨 부인에게 자신의 부모국이 원천강이라는 말을 듣고 원천강을 찾아가 방법을 물으니 백씨 부인이 백사가의 별충당 위에



고좌하여 글을 읽는 동영을 찾아가서 방법을 물으면 소망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함.

3) 오늘이 옥황의 분부로 글만 읽고 있는 청의동자 장상을 만나 원턴강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을 간청함.

4) 장상이 오늘에게 가다보면 연화못이 있는데, 그 못가의 연꽃나무에게 물어보라고 일러주고는 원턴강에 가거든 자신이 왜 밤낮 글만 읽어야 하고, 이 성 밖으로 외출치 못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다가 전해달라고 함.

5) 오늘이 연화못가의 연꽃나무를 보고 자신의 부모국인 원턴강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묻자, 연꽃나무는 먼저 원턴강에 가면 상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아니 피는 팔자를 물어달라고 함.

6) 연꽃나무가 오늘에게 청수와당이라는 큰 물에서 구르고 있는 천하대사(天下大蛇)에게 원턴강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 좋은 도리가 있을 거라 가르쳐 줌.

7) 오늘이 청수와당에 이르러 천하대사(天下大蛇)를 만나 어찌하면 원턴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인도해 달라고 하자, 큰 뱀이 오늘에게 다른 뱀들은 야광주를 하나만 물어도 용이 되어 승천하는데 자신은 야광주를 셋이나 물어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달라고 하며, 오늘을 등에 태워 청수 바다를 넘겨준 후, 가다보면 매일이란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 사람에게 원턴강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함.

8) 오늘이 청의동자모양 별충당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 매일을 만나 부모국 원턴강의 길 인도를 청하니 그가 쾌히 승락하고, 오늘에게 그 곳에 가서 항상 글만 읽고 있는 자신의 팔자를 물어달라고 부탁함.

9) 매일이 가다보면 시녀궁녀들이 낙루를 하고 있으리니 그들에게 물으면 소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함.

10) 오늘이 울고 있는 시녀들을 만나, 그 이유를 물으니 시녀들은 자신들이 옥황의 시녀들인데, 우연히 죄를 얻어 그 물을 다 퍼내기 전에는 옥황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바가지에 큰 구멍이 나 조금도 물을 퍼낼 수가 없으니, 오늘에게 같이 조력하여 주기를 청함.

11) 오늘이 옥황의 신인이 못 푸는 물을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어찌 풀 수 있느냐고 사퇴하다가 정당풀과 송진을 이용하여 바가지의 구멍을 막고 옥황상제에게 축도한 후, 물을 푸니 순간에 그 물이 말라붙음.

12) 시녀궁녀들은 오늘에게 백배사례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청하는 원턴강의 길을 인도해 줌.

- 13) 얼마쯤 오날을 데려가니 어떤 별당이 보임.
- 14) 시녀궁녀들이 오날이 가는 곳을 행복하게 해 달라는 의미의 축도를 하고는 제 갈 길로 감.
- 15) 오날이 별당 원문의 문지기에게 이곳이 부모국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문지기가 냉정하게 거절함.
- 16) 절망하여 혼도한 오날이 지면에 엎드려 온갖 고생을 겪으며 부모국이라 하여 찾아왔는데, 원턴강 신인들이 너무 박정하다며 문지기와 신인들, 부모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읊.
- 17) 문지기가 오날의 처지를 동정하여 부모궁으로 올라가 이 사실을 고하는데, 오날의 부모는 이러한 정황을 미리 알고 오날을 들어오게 하고, 낙망의 극에 있던 오날이 부모의 물음에 따라 학과 함께 자라던 내력과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얘기하자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자기 자식이 분명하다고 함.
- 18) 오날의 부모가 오날을 낳던 날 원턴강을 지키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어길 수 없었다며 여기에 있으면서도 오날을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었다고 함.
- 19)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있는 선계(仙界)인 원턴강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며칠을 보낸 오날은 오는 도중에 부탁 받은 일들도 있고 해서 돌아가겠다고 부탁들을 하나하나 설명함.
- 20) 오날의 부모가 부탁 받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오늘 이 연꽃나무의 상가지 꽃과 큰 뱀의 야광주를 받으면 신녀(神女)가 되리라는 것을 알려줌.
- 21) 오날이 부모가 알려준 대로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어 부탁 받은 일들을 해결함.
- 22) 오날이 백씨부인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린 다음, 그 보답으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하고 옥황의 신녀가 되어 승천함.
- 23) 승천한 오날은 상제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절마다 다니면서 원턴강의 목판을 등사하는 일을 맡음.

<원턴강본পুর이>는 위의 서사단락에서 나타나듯이 ‘오날’이 부모국인 선계(仙界) ‘원턴강’을 찾아가 이미 옥황의 신직(神職)을 받들고 원턴강을 다스리고 있는 부모를 만나 그 부모에게서 신직을 받아 자신도 옥황의 신녀(身女)가 되어 옥황의 명을 수행한다는 거시적 스토리 층위로 이

루어져 있다. 그런데 ‘오날’의 행위를 초점화하여 각각의 서사단락을 ① ‘오날’이 인간계에 거주하며 세상 사람들과 교유하며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과정 1)~2), ②자신의 부모국인 원천강을 찾아가는 과정 3)~14), ③사계가 공존하는 선계 원천강에서 부모를 만나 회한을 풀고 원천강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들의 부탁을 해결하고 자신이 신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부모에게 듣는 과정 15)~20), ④부모가 일러준 대로 해결방법을 알려주어 부탁 받은 일들을 해결한 서사소 21), ⑤‘오날’이 옥황의 신녀가 되어 승천하는 서사소 22), 그리고 ⑥승천한 ‘오날’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인간계에 강림하여 신직을 수행하는 서사소 22)로 통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층위를 ‘한 사건의 의미는 그것과 이웃하는 사건들과의 계열화를 통해 성립한다.’<sup>15)</sup>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본풀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서사요소는 ‘오날’이 이동하는 공간과 ‘오날’의 부모와 ‘오날’의 관계이다. ‘오날’이 ‘인간계→선계→천상계→인간계’로 이동하면서 옥황의 신직을 받드는 신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날’은 그녀의 부모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신녀가 되는데 이 과정은 세습무의 제의적 특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의 서사적 계열화를 간과하고 있다.

먼저 ‘오날’은 ‘적막한 드름에 웨로히 닛타나’ 인간계에서 혈혈단신으로 살다가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 부인에게서 자신의 부모국이 원천강이라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는 중에 장상, 연꽃나무, 큰 뱀, 매일, 옥황의 시녀들의 도움을 받는다. ‘오날’은 선계인 원천강에 이르러 부모를 만나 회한을 풀 다음,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이들의 부탁을 해결해 주고는 그 과정에서 연꽃나무에게서 받은 연꽃과 큰 뱀에게서 받은 야광주로 옥황의 신녀가 되어 승천한다. 그리고 ‘오날’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인간계로 다시 강림하여 신직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오날’의 공간 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날’이 관장했을 신직과

15)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153쪽.

<원턴강본푸리>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서사소가 이 공간과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오날’이 이동하는 공간의 의미를 간과하거나 축소하여 ‘원천강’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 서대석 역시 ‘오날’의 공간 이동을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하여 인간계에서 원천강으로의 이동만을 지적하면서 ‘수평적으로 분포된 신의 세계’<sup>16)</sup>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연구는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냐는 문제에 국한하여 원천강을 인간의 세계와 수평적으로 대비시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본풀이가 ‘오날’을 초점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원턴강본푸리>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수직 상하로 분포된 별계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싶다. 그런데 이러한 ‘오날’의 공간 이동은 ‘오날’의 신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오날’이 인간계에서 선계인 원천강을 찾아가 부모와 만나고 다시 인간계로 회귀하여 부탁 받은 일들을 해결하고 천상계로 승천하여 옥황상제의 신녀가 되었다는 서사는 ‘오날’을 옥황상제의 신직을 수행하는 옥황상제 계열의 신으로 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신들의 위계와 직능의 측면에서 보면 ‘옥황상제는 최고위의 신’<sup>17)</sup>으로서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화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는 신’<sup>18)</sup>이다. 이는 ‘오날’의 신격이 옥황상제가 관장하는 제재초복(除災招福)과 사주팔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오날’과 ‘오날’의 부모의 관계도 <원턴강본푸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서사소이다. 지금까지 <원턴강본푸리>의 연구 과정에서 이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날’과 ‘오날’의 부모가 동일하게 옥황상제의 명을 받드는 신직을 수행한다는 점 때문이다. 원천강을 찾아가 ‘오날’에게 부모는

16) 서대석, 「한국신화의 비교연구」,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481쪽.

17) 玄容駿, 『濟州道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190쪽.

18) 村山智順, 『朝鮮의 鬼神』, 金禧慶 옮김, 東文選, 1990, 169쪽.

‘너를 나흔 날에 옥황상제가 우리를 불러서 원턴강을 직히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할 수 업서, 여기에 잇게’ 되었다고 어린 ‘오날’을 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에 옥유를 고백한다. 이로 볼 때 ‘오날’의 부모 역시 ‘오날’과 마찬가지로 되었다상제 계열의 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은 부모는 ‘오날’이 신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려서 결국 ‘오날’ 역시 부모를 좇아 옥황상제의 신녀가 된로 남일련의 이러한 과정과 ‘세습무가 제주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sup>19)</sup>라는 점은 <원턴강본푸리>가 무(巫)를 세습하는 입무의례(入巫儀禮)인 강신제(降神祭)의 내림굿에서 구현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소통의 원리와 규칙을 전제한 연구라야 서사무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사무가가 철저하게 심방(무당=독경자)을 중심으로 신과 인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방의 職能도 고려해야 한다. 현용준은 심방의 주요 직능을 ‘㉠ 司祭的 職能, ㉡ 占師的 職能, ㉢ 靈媒的 職能, ㉣ 呪醫的 職能, ㉤ 演藝人的 職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sup>20)</sup>, 이 가운데 ㉤은 무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수반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심방의 특정한 직능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서사무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간과하는 소통적 맥락이 바로 서술자, 즉 무가에서의 구현자인 심방(무당)이다. 심방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무의(巫儀)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기층문화적 맥락에서 한국 무력의 특징이 ‘가무의례인 굿을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굿을 하는 의례무(儀禮巫) 쪽이 무격(巫覡)으로서의 본질적인 것’<sup>21)</sup>으로 굿의 祭儀가 神·信徒·司祭者를 기본요소로 ‘請神→<待接·祈願>→送神’<sup>22)</sup>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심방의 역할은 굿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가의 소통적 맥락을 고려하면 본풀이를 구현하

19)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82, 260쪽.

20) 玄容駿, 『濟州道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46~63쪽.

21) 玄容駿, 『濟州道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46쪽.

22)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82, 404~409쪽.

는 주체가 심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원턴강본풀이>를 ‘오날’이 심방이 되는 입무과정에서 불러졌던 본풀이’<sup>23)</sup>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본풀이를 구연하는 심방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풀이는 일반적으로 ‘신을 강림시키는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느낌이 강하다.’<sup>24)</sup>는 점, 그리고 ‘오날’이 옥황상제의 신녀가 되어 인간에 강림하여 원턴강을 등사하게 하였다는 점 등을 전제한다면, 이 <원턴강본풀리>는 제재초복(除災招福)하거나 사주팔자를 관장하는 옥황상제 또는 그와 관련된 신을 강림시키고자 하는 본풀이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방이 이 본풀이를 구연함으로써 옥황상제나 그와 관련된 ‘오날’과 같은 신을 청하여 성무의 의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듯싶다. 따라서 ‘인간이 신이 되는 이야기’의 유형<sup>25)</sup>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사무가 <원턴강본풀리>는 신곳에서 옥황상제 위계의 신인 ‘오날’을 강림시켜 세습무의 의례를 치를 때 심방이 구연하는 본풀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턴강본풀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서사단락이 바로 17)과 21)이다. 옥황의 신녀가 된 ‘오날’의 신격과 <원턴강본풀리>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서사단락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면에 복와한 오날이는 기백만리 인간 원방에서 처녀 단지 혼자 외로히 원갓 산과 원갓 물을 건너 웬 고생 격그면서 부모국이라고 이런 곳을 차저왔는데 이러케도 박정하게 하는구나. 이 문 안에는 내 부모 잇슬연만은 이 문 압헤 내 여기 왓건만은 매일이는 소원성취한다더라만은 원턴강 신인들은 념우 무정 타 비인 들에 홀로이 울든 이 처녀 천산만하 념을 적에 웨로운 처녀 부모국의

23)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2~60쪽.

24)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亦樂, 2001, 55쪽.

25) 洪泰漢, 「韓國 敍事巫歌의 類型 分類 研究」, 『高鳳論集』第18輯, 1996, 56쪽.

문압해 웨로운 처녀 부모는 다 보왔나, 내 할 일 다 하얏나 강님 갈까 무엇할 이, 여기서 죽자 팔자(八字) 부탁 어찌할이 모든 은혜 어찌할이 박정한 문직이야, 무정한 신인들아 그리웁던 어머니야, 그리웁던 아버지야 오늘이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리 말하며 연하야 늦겨우니<sup>26)</sup>(띠어쓰기와 문장부호는 필자)

②……부모하는 말이 장상이와 매일이는 부부가 되면 만년영화를 누릴 것이요,련화동은 웃가지의 쏘을 짜서 초면하는 사람의게 주어버리면 다른 가지에도 만발할 것이며 대사는 야광주를 일 개만 물었스면 할 태인데 넘우 욕심을 만히 가져서, 삼 개를 물어버리니 통이 못 된 것이다. 그러니 초면자에게 두 개를 바터서 주어버리면, 곳 통이 되리라 하고 너도 그 야광주들과 련화를 갖으면 신녀가 되리라<sup>27)</sup>(띠어쓰기와 문장부호는 필자)

먼저 ①은 ‘오늘’이 원천강에 이르러 자신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별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가로막자 절망하며 신역에 겨웠던 자신의 처지와 부모를 포함한 원천강 신인들의 박정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이 서사단락을 발화적 측면에서 보면 이 서사소는 무속을 집행하는 심방의 발화이지만, ‘오늘’의 직접 발화에 해당하는 서사단락이다. 심방의 몸에 ‘오늘’이 실려 심방은 ‘오늘’의 신성(神聖)으로 몰입되어 자기를 잃고 이미 ‘오늘’과 합일화한 상태에서 이 서사단락을 구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서사단락의 서사소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오늘’이 원천강까지 찾아오는 과정에 겪은 고생을 이야기하며 원천강의 신인들의 박정을 원망하며 부모에게 하소하는 서사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천강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대신 부탁 받은 팔자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강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탄하는 서사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발화에는 신이 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례로서 ‘오늘’이 겪은 고난

26) 赤松智城秋葉 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 沈雨星 옮김, 東文選, 1991, 296~297쪽.

27) 赤松智城秋葉 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 沈雨星 옮김, 東文選, 1991, 298쪽.

과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팔자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오날’은 원천강에 있는 신인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부모에게 하소한다. 여기에서 ‘오날’이 인간의 제재초복과 사주팔자를 관장하는 옥황상제 위계의 신과 관련이 있으며, 적어도 <원턴강본푸리>가 세습무로 입무하기 위한 신국의 무가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서사단락은 <원턴강본푸리>의 절정에 해당하는데, 굿관의 연행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절정 부분은 ‘오날’의 발화를 통해 심방을 세습하고자 하는 제주(祭主)와 굿을 참례하는 신도들이 눈물을 흘리도록 자극하여 ‘오날’에게 동화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서사단락을 통해 원천강의 공간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곳은 ‘신인’들이 거주하는 ‘선계’인 것이다. 이 점은 신녀가 되어 천상계에 올랐다 다시 인간계에 강림한 ‘오날’과 대비되는 서사적 의미로서 ‘오날’의 신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②는 위의 서사단락 21)의 해원(解冤)의 서사와 연계를 이루는 발화이다. 이 발화 역시 무가의 구연자인 심방의 목소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날’의 부모가 수행하는 발화이다. ‘오날’의 부모가 ‘오날’에게 도움을 준 이들의 팔자를 풀어주고, ‘오날’이 신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서사단락은 ‘오날’의 부모 역시 옥황상제 계열의 신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딸에게도 같은 신직을 받도록 권유한다는 의미를 내포 ‘오있다. 사실 ‘오날’의 부모가 일러준 팔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계의 모든 욕망(慾望)과 원한(冤恨) 그리고 정(情)에서 벗어나는 탈욕(脫慾)의 삶을 이끌 때 저절로 자신의 팔자가 열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제재초복(除災招福)(혹은 제액초복(除厄招福))이라는 굿의 궁극적인 목적과 맞닿아오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신녀에 오를 수 있는 길임을 서사단락 22)의 ‘오날’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적 측면을 고려하여 23)의 서사단락과 관련이 있는 ‘이러



한 오늘날은 인간에 강림해야 절마다 덴기며, 원턴강을 등사하게 하얏다’는 서사소는 오늘날이 인간계의 사주팔자와 제재초복(除災招福)을 관장하여 인간계를 이롭게 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서사소를 ‘오늘’이 결국 심방(무당)이 되었다는 근거로 보는 견해는 다소 맥락에서 벗어나는 해석인 듯싶다. 신녀인 ‘오늘’에게 점서로서의 ‘원턴강’을 등사하게 하였다는 것은 인간계의 모든 원한(冤恨)을 풀어주도록 하였다는 환유적 표현으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韓國古代巫敎의 性格이 집약된 理念이 곧 弘益人間 또는 光明理世라는 견해』<sup>28)</sup>와도 상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서사무가 박봉춘 본 <원턴강본푸리>는 세습무 또는 강신무의 성무 과정의 신궁에서 제주(祭主)를 무로 만들기 위해 신을 강림시키도록 하는 무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가에서 옥황의 신녀인 ‘오늘’이 인간계에 강림한다는 것은 내림굿의 일반적 원리를 전제할 때, ‘오늘’이라는 신을 접한 제주(祭主)를 통해 인간계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발원한다는 의미도 함축한다. 인간과 신의 공존, 인간과 신적인 것이 만나는 ‘사건’<sup>29)</sup>은 제재초복(除災招福)을 발원하여 두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역설적 세계의 소통방식이다. 인간과 신은 구별되면서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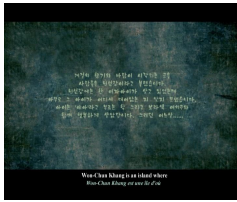
### III. 인간계와 이계(異界)의 접속, 그 차이의 탈주선

박봉춘 본 <원턴강본푸리>는 어린이 동화책<sup>30)</sup>으로 발간되었고, 2003

28)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研究』, 集文堂, 1987, 113쪽.

29)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건’이란 개념은 사실이나 사실들의 접속 내지 계열화에 의해 그 사물이나 사실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함.(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1999와 이진경, 「사건의 철학과 역사유물론」,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참조.)

30) 대표적인 동화책으로는 서정오, 『오늘이』, 봄봄, 2007과 이성강, 『오늘이』, 문공사, 2004가 있다. 이성강의 『오늘이』는 애니메이션 그림책으로서 애니메이



년 극단 ‘신화세상’이 <춘하추동, 오늘이>라는 아동극으로 창작해 현재까지 무대, 오르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김순정 발레단이 <원턴강본푸리>를 <시간의 꽃, 오늘>이라는 현대발레로 창작했고, 같은 해, 국립국악원이 어린이 음악극으로 <오늘이>를 무대, 올린 이래, 2010년 5월까지 어린이 관객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악뮤지컬 집단 ‘타루’가 오늘이 주인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오늘, 오늘이>를 선보임으로써 <원턴강본푸리>는 다양한 장르의 신화 콘텐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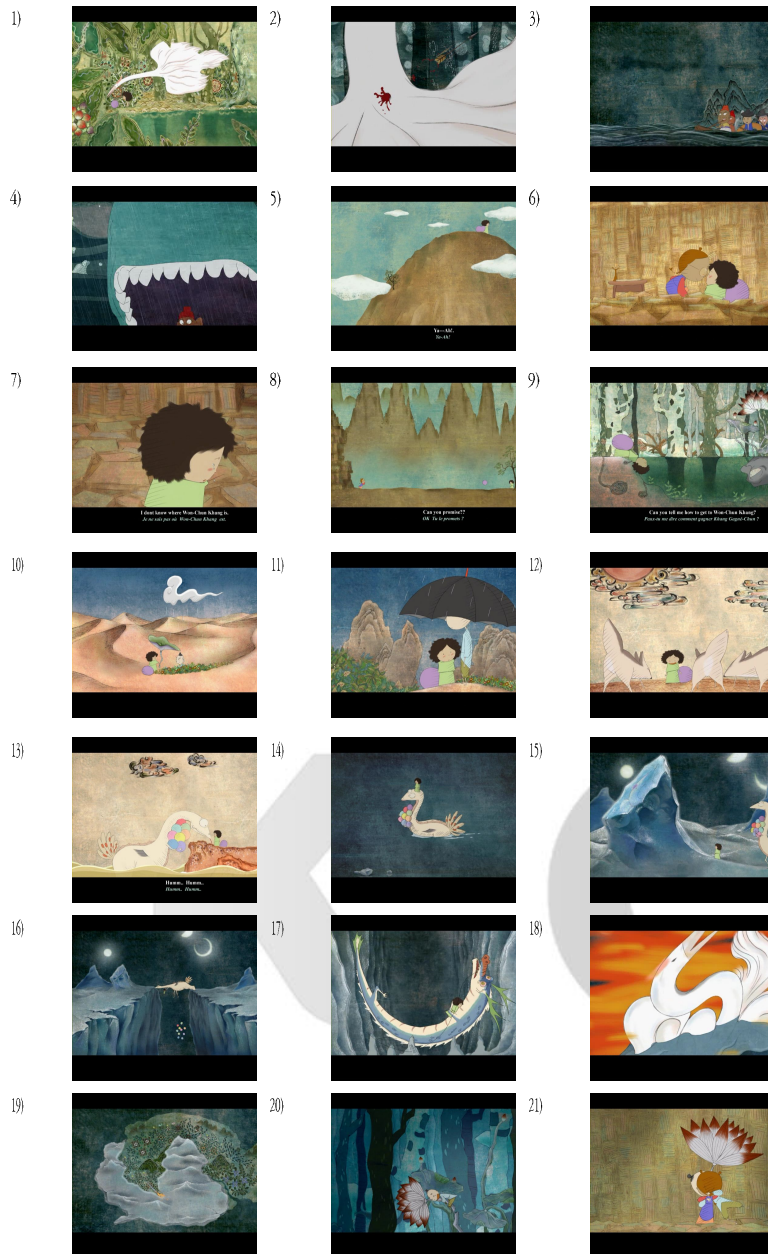
소통되고 있다. 이렇듯 이야기는 접속과 계열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살아가는 생명이자 잠재적 의미태이다. 그러기에 이야기는 우리의 사유의 잠재성을 소환하고 자극한다. 이야기의 생명을 생명답게 열어주는 계기가 바로 ‘이야기의 차이화’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003년에 이성강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오늘이> 역시 <원턴강본푸리>를 자신의 창의성과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계열화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이러한 삶은 결국 ‘생성 변화하는 시물라크르의 층위가 계속 반복하는 것’<sup>31)</sup>이다. 이성강 감독이 ‘한국의 신화적 모티프를 활용하여 인간의 운명과 집착에 관해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표현해낸 수작’<sup>32)</sup>으로서의 <오늘이>는 대략 16분 29초 정도의 상영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이>의 서사단위를 관련 쇼트 별로 분절하면 다음과 같다.

선 <오늘이>와 거의 같다.

31)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4, 306쪽.

32) 조미라, 「세상을 품은 영원의 시간」, 『상상력의 미학, 애니메이션』, 한울, 2009, 15쪽.



22)



23)



24)



위의 쇼트를 시퀀스별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원천강에서 ‘야아’라고 불리는 학 그리고 보라색 여의주와 함께 ‘오늘’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학의 품에 안겨 잠든 오늘의 품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여의주를 빼앗고 뱃사람들이 오늘이를 둘러메어 배에 싣고 어딘가로 감. 뒤쫓아오는 학 ‘야아’를 뱃사람이 화살로 쏘 그 화살이 ‘야아’의 날개를 관통함(1~3)).

2) 큰 파도가 일어 배를 내동댕이치고, 커다란 고래가 뱃사람들을 차례로 삼켜 버림. ‘오늘’이 이계의 물으로 떠밀려와 ‘야아’를 찾지만, 보이지 않자 여의주와 함께 원천강을 찾아나섬(4~5)).

3) 책으로 지어진 커다란 성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책을 많이 읽는 ‘매일’을 만나 행복했던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묻고, ‘매일’이 동쪽으로 난 길에 있는 연화못의 연꽃 나무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 자신에게 꼭 가르쳐 달라고 오늘에게 부탁함(6~8)).

4) ‘오늘’이 연화못에 이르러 꽃봉오리가 많지만, 꽃이 한 송이밖에 피지 않아 슬프다는 연꽃나무의 고백을 듣고, 연꽃나무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자, 그곳으로 가려면 사막을 건너야 하는데, 사막에 있는 소년에게 연잎을 주면 사막을 건너도록 도와줄 거라며 연잎을 줌(9)).

5) ‘오늘’이 사막에 있던 ‘구름’이라는 소년을 만나 그에게 연잎을 건네자 ‘구름’이 연잎으로 우산을 만들어 쓰고 ‘오늘’과 함께 사막을 건넌. 사막 끝에 울창한 숲이 나타나자 ‘구름’이 저 숲에 사는 이무기가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거라고 일러 줌(10).

6) ‘오늘’이 이무기를 만나기 위해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 가는데 늑대들이 쫓아와 ‘오늘’이 위험에 처함(11~12))

7) ‘오늘’이 이무기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무기는 여의주 하나로도 모두 용

이 되는데, 자신은 여의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용이 되지 못한다고 한탄함. ‘오늘’이 이무기에게 원천강으로 데려달라고 부탁하고,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이무기의 말에 낙담하여 우는데 이를 측은히 여긴 이무기가 ‘오늘’을 원천강으로 데려다주는 대가로 ‘오늘’의 여의주를 갖겠다고 함. 이무기가 데려다 준 원천강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야아’가 얼음 속에 갇혀 있음(13)~15)).

8) 이무기가 가지고 있던 ‘오늘’의 여의주가 바닥으로 떨어지니 얼어붙은 땅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떨어지는 ‘오늘’을 이무기가 구하는데 그 겨를에 품에 안고 있던 여의주들이 아래로 쏟아지자 이무기가 비로소 용이 됨(16)~17)).

9) 용이 된 이무기가 불을 뿜어 얼음 속에 갇혀 있던 ‘야아’를 살려내고, 얼어붙었던 원천강을 녹여 옛날의 원천강으로 살려냄(18)~19))

10) 원천강에 불이 붙자 용이 사막의 비구름을 몰아다 그 불을 끄는데, 용이 비구름을 몰아가는 바람에 ‘구름’ 소년도 날아가다 연꽃나무를 잡게 되고 위에 피었던 연꽃을 꺾게 됨. 그러자 연꽃나무에 연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연꽃과 함께 날아가던 ‘구름’ 소년이 책으로 지어진 성으로 날아가 글을 읽고 있는 소녀 ‘매일’에게 연꽃을 건네자 연꽃을 받아든 ‘매일’이 ‘구름’ 소년과 포옹함(20)~21)).

11) 용이 원천강의 불을 모두 끄고 ‘오늘’이 ‘야아’와 다시 만나 행복감에 젖는데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용이 세 개의 달이 밝은 하늘 저 편으로 날아가자 ‘오늘’이 잘 가라고 인사함(22)~24)).

위와 같은 시퀀스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스타일에서는 회화를, 내용면에서는 내면을 추구한다는 작가적 철학’<sup>33)</sup>이 고스란히 배여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성강은 원전 <원천강본পুর이>를 회화의 스타일과 애니메이션 특유의 환상성, 그리고 독특한 캐릭터 창조를 통해 삶의 이법을 모색하게 하는 내용으로 차이화를 시도함으로써 문화콘텐츠로서의 전범을 이루어 내고 있다. 먼저 <오늘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 ‘원천강’에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오늘’이 학

33) 박경희,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스타일 체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3쪽.

‘야아’, 그리고 보라색 여의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여의주를 탐내는 사람들의 탐욕으로 ‘오늘’은 여의주와 함께 이계의 물으로 떠밀려 왔다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그리고 이무기 등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원천강으로 돌아가 학 ‘야아’와 재회한다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은 탈욕적이면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에게 도움을 주었던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그리고 이무기 등은 ‘오늘’과 접촉함으로써 허상과 탐욕,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소망을 성취한다. 그래서 <오늘이>는 인간적 가치의 기원과 현대의 과학적 신화를 꼼꼼 회의하게 한다.

이 서사구조를 핵심서사소 별로 각 쇼트를 통합하면 ①오늘이 원천강에서 이계의 물으로 떠밀려 간 서사소 1)~5), ②원천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물들을 만나는 서사소 6)~14), ③용이 된 이무기의 도움으로 원천강을 찾아 ‘야아’와 재회하고 얻었던 원천강을 되찾은 서사소 15)~24) 등의 계열적 관계로 대별할 수 있다. 결국 <오늘이>이는 이러한 서사구조를 통해 ‘계열체의 강화에 의한 참여적 수행의 강화는 조형성·음악성·서술성의 상보적 통합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sup>34)</sup>과 함께 주인공 ‘오늘이’ 행복의 원천인 원천강을 잃고, 이계에서 다시 원천강을 찾아가기 위해 만나게 되는 인물들과 그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생성하는 의미가 이야기를 추동하고 있다. 또한 이 애니메이션에는 ‘미학적이고 심리학적이며 기능적인 의미에서 애니메이션에 절대 필요한 과장과 단순화’<sup>35)</sup>에 의한 셔레이드가 희극성을 유발하는 동시에 관객 지향적인 다양한 층위의 가치론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이 작품이 생성하는 의미는 다극적이다. 그 의미를 인물과 사건을 중

34) 박기수, 「애니메이션 서사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20쪽.

35) 존 헬라스·로저 맨벨, 『애니메이션의 이론과 실제』, 이일범 역, 신아사, 2000, 76쪽

심으로 작품 내 피서술자로서의 ‘오늘’, 뱃사람들과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이무기 등이 생성하는 가치, 이 작품의 핵심 서사소들이 생성하는 가치, 그리고 작가(연출가)-서술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념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가치들은 결국 작가(연출가)-서술자의 관념 대별셈렘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오늘’은 인간계의 냉혹성과 시련, 인물들의 다양한 욕망을 경험함으로써 비록 그것이 타자의 물리적 강압에 따른 상황의 변화였을지라도 원천강을 떠나갓의 전과 이후를 통해 수많은 사건들의 배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차이를 만들었비록 것, 그래서 전의 원천강에서의 삶 즉, 기존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원천강에서의 삶 즉, 기존의 낡은 삶의 방식후의 원천강에차이를 생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탈주선을 그릴 수 있게 되었비록 것이 작품의 핵심생성하는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오늘’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한 긍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파괴의 부정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뱃사람들과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이무기 등은 탐욕과 집착, 허상에 빠짐으로써 파멸하거나 기존의 삶을 반복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하고 불만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과 접속하여 계열화함으로써 꽃을 피우고, 행복을 알게 되고, 용이 되어 승천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탐욕에서 벗어나고 자연성을 긍정한, 즉 ‘되기’라는 차이화를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피서술자들의 가치는 작가(연출가)-서술자의 관념적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을 되찾고 자유로워진다는 그 충고가, 제 애니메이션과 그림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sup>36)</sup>는 작가의 언급은 이 애니메이션의 창작의도와 피서술자들이 생성하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는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적인 지배소가 바로 작가(연출가)-서술자의 관념적 태도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물을 창조하고 조종하며

36) 이성강, ‘작가의 말’, 『오늘이』, 문공사, 2004.

사건을 배치하고 미장센을 컨트롤하며, 카메라워킹을 선택하는 일이 작가-서술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오늘이> 생성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을 통해 보이던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듦으로써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드는 사유적 전복일 것이다. 그것은 내부에 있는 것, 자신이 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바깥으로 이끄는 힘이다.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공간적 배경 ‘원천강’은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오늘’에게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행복의 이상적 공간이다. <원천강본পুর리>의 선계 이미지와 동일한 구조이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있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풍성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성은 신과 계열화되지 않고 인간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과 계열화되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힘이 된다. 물론 이러한 공간 설정은 이 애니메이션이 소통의 맥락상 청자(독자, 시청자, 관객)로서 어린이들을 유념한 작가의 창작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의주만을 지니고 학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동심과 그 여의주를 탐내는 어른들의 탐욕을 배치시키는 일 또한 이 공간과 계열화했을 때 사건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행복의 원천인 ‘원천강’에서조차 평화와 풍요를 모르고 ‘오늘’의 여의주를 탐내는 기성세대의 탐욕성과 그로 인해 원천강을 잃고 이계를 방황해야 하는 ‘오늘’의 시련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적 자질은 결국 ‘작중 인물들이 존재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원인 아니면 결과’<sup>37)</sup>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작가(연출가)-서술자가 계열화한 사건은 어떤 양상을 띠며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 것일까? 이 작품은 ‘오늘’을 중심으로 사건이 계열화된다. 먼저 첫 번째 계기적 사건은 뱃사람들이 ‘오늘’의 여의주를 빼앗고, 그를 배에 싣고 어딘가로 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오늘’을 뒤쫓아 오던 ‘야야’는 뱃사람이 쏜 화살에 날개를 맞아 추락하고 만다. 이 사건은 ‘오늘’의 긍정적인 힘과 뱃사람들의 부정적인 힘의 대결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대결에서 뱃사람들은 결국 자연의 위력에 굴

37) 마이클 J. 톨란, 『서사론』, 김병욱·오연희 공역, 형설출판사, 1995, 151쪽.



복한다. 즉 뱃사람들이 ‘오늘’을 배에 p싱고 달아나는데, 파도가 일어 배를 내동댕이치고, 물에 빠진 뱃사람들을 고래가 차례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늘’은 비로소 원천강이 아닌 외부의 세계에 눈을 뜨고 외부인들과 접촉한다. 보이던 것에 익숙했던 오늘은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을 만나고 그것들에 대하여 사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의주와 함께 이계의 물으로 떠밀려온 ‘오늘’은 ‘야아’와 원천강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인물이 ‘매일’이다. ‘매일’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책만을 읽는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책을 통해 행복을 알려고 하는 험량한 인물이 바로 ‘매일’이다. 그런 ‘매일’이는 무엇이든지 책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로서 행복을 알기 위해 수만 권의 책을 읽는, 어찌 보면 유식하면서도 아둔한 역설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원천강을 찾아가기 위해 연꽃나무를 만나러 가는 ‘오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이 사건은 인위적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앎만을 신봉하는 인간계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사소로도 읽힌다. ‘매일’이 일러준 대로 ‘오늘’이 두 번째로 만나는 인물이 연화못의 연꽃나무이다. ‘오늘’이 만난 연꽃나무는 꽃봉오리가 많지만, 꽃이 한 송이밖에 피지 않음을 불만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고는 많은 꽃송이만을 피우려는 연꽃나무는 다소 게으르고, 무지하며 욕심이 많은 인물이다. 그러나 ‘오늘’이 원천강을 찾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자신의 연잎을 ‘오늘’에게 건넴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자발적 희생이나 노력이 결국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깨칠 수 있다는 이법을 함축한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새롭게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한 깨우침일 것이다.

‘오늘’이 그 다음으로 만나는 인물이 ‘구름’ 소년이다. 구름 소년은 오늘이 연잎을 건네자 그것을 우산으로 만들어 비를 피하고 ‘오늘’이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연잎은 연꽃나무와 ‘매일’을 이어주는

상징적 소재로 작용한다. 이는 또한 복선 역할을 하는 서사적 소재이기도 하다. 사막의 끝 울창한 숲 앞에서 ‘구름’ 소년이 일러준 대로 이무기를 만나기 위해 그 숲으로 들어서 가는데, 늑대들이 나타나 ‘오늘’이 위기에 처하고 이무기의 도움으로 ‘오늘’이 위기를 모면한다. 우리의 대부분의 설화에서 그러하듯, 이무기는 지독한 원한(冤恨)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용이 되지 못한 원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오늘’이 만난 이무기 역시 다른 이무기는 여의주 하나로도 용이 되는데, 자신은 여의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한다. 더욱이 그의 욕심은 지나쳐 ‘오늘’을 원천강까지 데려다 주는 대가로 ‘오늘’과 함께 있는 여의주를 자신이 갖겠다고 한다.

여기서 이무기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이 자신 스스로가 이무기로 포획하고 있음을 모르는 인물이다. 이는 인간계 어느 인간들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 탐욕적 인간과 상통한다. 사건이 생성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이무기는 자본주의가 생산해 내는 결여를, 결핍을 끝없이 채우기 위해 더욱 탐욕성에 빠져들어 괴물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인간군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애니메이션은 생략된 단순 그림이기 때문에, 상상에 의한 심상(心象)을 마음 속에 그릴 수 있고, 이러한 심상은 무한한 내적 표현이 가능하다.’<sup>38)</sup>는 전제에서 말미암는다. 결국 이무기는 ‘야아’가 얼음에 갇혀 있고 얼음으로 뒤덮인 원천강으로 ‘오늘’을 데려다 주고 ‘오늘’의 보라색 여의주가 떨어지면서 원천강의 땅이 갈라져 ‘오늘’이 그 틈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자신이 품고 있던 여의주를 모두 버리면서 ‘오늘’을 구하자 자신은 비로소 용이 된다. 이 시퀀스는 탐욕에 갇혀서는 그 무엇으로도 새롭게 살 수 없다는,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성의 삶의 이치를 보여 준다.

그리고 용이 된 이무기는 불길을 내뿜어 얼음에 갇혀던 ‘야아’를 구원하고, 얼음으로 결박되었던 원천강을 녹여 ‘오늘’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38) 황선길, 『애니메이션의 이해』, 디자인하우스, 2000, 35쪽.

원천강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원천강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사막의 구름을 몰어오는 과정에서 ‘구름’ 손님이 연꽃나무의 연꽃을 꺾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연꽃나무에 연꽃들이 다투어 피어난다. 그리고 ‘구름’ 소년은 자신이 바람에 날려 꺾은 연꽃을 매일에게 건넨으로써 둘이 사랑하게 된다. ‘매일’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용이 원천강의 불을 다 끄고 ‘오늘’이 ‘야아’와 행복하게 재회한다. 그리고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용이 세 개의 달이 떠있는 하늘 저 편으로 날아가자 오늘이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롱 쇼트로 잡아내는 데 이 장면이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마지막 쇼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의 행위로 이루어진 사건의 절정과 대단원의 시퀀스는 대단히 환상적이다. 여기에 이성강의 애니메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파스텔톤의 화풍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친숙함을 주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sup>39)</sup> 환상적인 공간과 사건, 인물 등은 낯설지만, 그 낯섦으로 인해 더욱 친근하고 과학적 세계관의 냉혹함보다는 신화적 상상력의 따뜻함과 유쾌함을 불러일으켜 준다. 서사층위에서만 보자면 문학에서의 환상은 ‘현실적으로 배제되어 무의식적 심층에 억압되었던 초자연적 존재나 그들의 세계가 부활하는 형태로서, 혹은 이들이 현실과 소통하며 현실의 내용을 바꾸어가는 형식으로 표현되는데’<sup>40)</sup>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지배하는 환상성 역시 이러한 환상의 의미를 선취하고 있다. <오늘이>의 환상성은 이미지를 통해 구현된다. 그런데 ‘조형 예술에서 환상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의 세계와 가능성의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해야 한다.’<sup>41)</sup> <오늘이>의 환상성은 이 양자를 포괄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기에 사유의 잠재성을 흔들어 나를, 우리

39) 홍은주, 「디지털 작업 과정으로 표현되어진 파스텔화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0쪽.

40) 최기수,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92쪽.

41) 이윤희,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매혹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34쪽.

를 사물들 쪽으로 돌아서게 하여 그것의 가치나 개념을 다시 사유하고 은폐된 외부를 찾아내어 그것을 다시 내부화하는 탈주선을 그리도록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곧 우리와 사물들을 구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오늘’이 접속하는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이무기 등은 모두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피하여 자신을 자폐적 세계로 밀어 넣은 인물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관계적이고 의존적이어야 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허상의 지식에 갇혀 있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생명으로서의 자신이 소멸해 가는 것에 불만하며, 자신의 표상이나 관념에 갇혀 나의 바깥을,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을 두려워하고,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자기 자신을 탐욕으로 포획하고 마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탈욕적이면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오늘’은 자폐적인 이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자신은 새롭게 산다. 이성강 감독의 작품들에는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는 존재의 고뇌와 상처’<sup>42)</sup>가 균열져 있다면 이때의 자아 정체성이란 일자에 포섭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잠재태로서의 정체성, ‘되기’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성강의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오늘’에게서 우리는 ‘타자성을 향해 무한히 열리는 무아(無我)’<sup>43)</sup>를 본다.

#### IV. 변형과 생성의 분열, 혹은 구비문학의 문화콘텐츠화 의의

‘문화콘텐츠의 힘이 되는 근간은 신화적 상상력’<sup>44)</sup>이라고 할 수 있다.

42) 박경희,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스타일 체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3쪽.

43)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97쪽.

44) 선미라, 「원형·신화·콘텐츠」, 『한국문예비평연구』 2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

그런데 이 양자는 차이화의 조건을 전제한다. 신화적 상상력은 신화를 전제하고 그 신화를 변형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도록 다양한 장르로 변이시켜 창조하는 것이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원전과 새롭게 생성한 시물라크라의 영향관계를 탐색하여 그 동일자와 이질적인 것들을 구분하고 동일자를 중심으로 원본의 우월성을 암암리에 전제하는 일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동일자 중심의 본질주의에서 유래한 관습에 불과하다.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규명하여 이야기라는 생명이 어떻게 소통하고 무슨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사유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한 작업일 것이다. 이야기는 항상 무엇과 접속하기를 욕망하여 변화하고 소통하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를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어떻게 차이화하여 소통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구비문학을 콘텐츠화하는 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 또한 텍스트 연구만큼이나 필요한 작업이다. 서사구조에 한정하여 볼 때,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과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공통점은 ‘오늘’이 원천강을 찾아가는 서사소가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늘’이 원천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늘’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들 역시 거의 동일하다. 또한 얼마간 삽입된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이들 인물과 관련된 서사소들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양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건과 계열화하고 그에 따라 생성하는 의미 또한 새롭고 다층적이다. 이러한 차이화는 사건을 무엇(누구)과 계열화했느냐에서 비롯한다. 즉 <원턴강본푸리>는 곳과 계열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신과 접속하고, 이를 통해 인간계의 재초복(除災招福)을 발원하는 무가이고 <오늘이>는 <원턴강본푸리>를 차이화하여 관객 혹은 독자 지향적인 애니메이션과 계열화함으로써 오락과 ‘인간적’ 가치의 생성을 꾀하는 영상예술이다.

또한 핵심모티프인 ‘원천강’의 의미 역시 차이를 보인다. 즉 <원턴강

본পুর이>에서의 ‘원턴강’은 부모가 살고 있는 선계이다. 이에 비해 <오늘이>에서의 ‘원천강’은 ‘오늘’이 행복하게 살았던 인간계의 이상적 공간이다. 인물 측면에서 보면 먼저 ‘오늘’이 부모가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에서는 공통되나, <원턴강본পুর이>의 ‘오늘’은 옥황의 신녀가 되어 인간계에 강림하는 데 비해 <오늘이>의 ‘오늘’은 인간으로서 떠나왔던 원천강에 다시 돌아가 학 ‘야야’와 재회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신성(神性)의 유무에서 연유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서사구조에서 인물과 사건을 차이화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바로 이 신성의 유무 문제이다. 그리고 <원턴강본পুর이>에서의 ‘오늘’에게는 ‘원턴강’이라는 선계에 옥황의 명을 받드는 신으로서의 부모가 존재하지만, <오늘이>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오늘’과 접촉하는 인물들 역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원턴강본পুর이>의 ‘오늘’은 학, 박이왕의 어머니인 백씨 부인, 장상, 연꽃나무, 이무기, 매일, 옥황의 시녀들을 만나 도움을 받고 그들의 팔자를 해결해 주고 승천하였다 다시 인간계로 강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오늘이>의 ‘오늘’은 학, 뱃사람,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늑대, 이무기 등을 만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적 사건을 만들고 자신의 삶터인 원천강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서사구조이다. 먼저 <원턴강본পুর이>는 ‘오늘’이 우여곡절 끝에 원턴강을 찾아가 그곳에서 옥황의 명을 수행하는 부모와 만난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부탁했던 팔자 문제를 부모가 일러준 해결책을 빌어 해결해 주고 자신은 승천하여 옥황의 신녀가 되어 옥황의 명을 받고 다시 인간계에 강림하여 인간계의 제재초복을 기원한다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오늘이>는 뱃사람들의 탐욕으로 원천강에서 이계의 물으로 떠밀려오게 되고, 다시 원천강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이들의 무지와 불만, 탐욕 그리고 소원과 마주치지만, 각각의 계기적 사건들을 통해 ‘오늘’은 원천강으로 되돌아오고 각 인물들은 스스로

를 불행하게 했던 부정적 힘들에서 벗어나 소원을 성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무기가 여의주를 버림으로써 용이 되어 불길을 뿜어 얼음에 갇혔던 학 ‘야아’를 구원하고, 얼음에 결박되었던 원천강을 예전의 평화스러운 공간으로 되살리는 시퀀스는 이 작품의 절정으로서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상상력과 환상성, 그리고 파스텔톤의 이미지, 다양한 카메라워킹 등이 어우러져 애니메이션만의 창조 묘미를 살려낸다. 또한 <원턴강본푸리>가 제의성을 띠으로써 인물들이 엄숙하고 정형화되었다면, <오늘이>는 어린이를 관객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인 만큼 과장과 단순화를 통해 인물들을 발랄하고 유쾌하며 개성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을 자폐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병리적 징후들의 인물들과 계열화함으로써 독자나 관객들로 하여금 바깥과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과 소통하고 사유하도록 한다. 그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방식이고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생성하는 의미이다.

이렇듯 신화 혹은 설화로서의 구비문학은 무엇과 접촉하고 계열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생산하고 변형시키며, 의미를 생성하도록 추동하는 생명체이고 에너지이다. 그래서 ‘구비(口碑)’ 문학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소통을 욕망하고 그래서 소통하기 때문이다.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시공을 건너 애니메이션 <오늘이>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의 이러한 욕망의 흐름이며 이는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며, 신화적 이야기를 빌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야기는 고대와 현대라는 구분을 거부한다. 이야기는 우리의 욕망과 동일하다. 그것은 무엇을 결핍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무가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차이화를 이룬 전복적 사유를 통해 이야기는 새로워지고 우리 사이에서 소통함으로써 사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의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거나 드높인 것으로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계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한다.<sup>45)</sup>고 했을 때, 문화콘텐츠를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짙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의미 자체도 모호하고 획일화를 가속하는 세계화, 보편화와 같은 동일자 중심, 적어도 서구중심의 논리에 편승하여 우리 이야기의 생명을 상업화라는 자본의 논리로 질식시키는 현상을 적잖게 목격한 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성의 논리를 앞세운 근대적 지배전략을 답습하는 일이고, 실체론적 사유를 전복할 수 있는 신화 또는 옛이야기의 사유체계를 구조의 보편성에 다시금 포섭하여 감금하는 자본적 권력화이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없는 이야기를 무엇과 배치하여 변형시키고 '지금'과 '여기'의 우리 사이에 소통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다. 우리의 신들, 우리의 기층적 이야기들마저 자본에 포획시키는 일은 인간주의적 기획을 와해시키는 일이다. 자본은 모든 것을 증식하고 포획하여 이윤획득이라는 선별적 원리가 언제나 차이 생산과정을 지배하고, 그것의 노예화를 일삼기 때문이다. 신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과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심방(무당)이 구연했던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에서 약 16분 20여 초의 애니메이션 <오늘이> 새롭게 살아 우리를 더욱 낯설게 하고 불가시적인 세계로 길을 열어주어 나의 표상이나 관념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듯, 동일자의 반복을 넘어 우리의 옛이야기를 이 땅의 모든 존재, 자연, 동물, 달 자매, 해 형제, 들판의 새,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배치시켜 탈지중화, 탈형식화할 수 있도록 추상하는 일, 이것이 옛이야기를 콘텐츠화하는 일의 일차적 의의일 것이다.

## V. 결 론

이야기는 반복적이다. 이때 반복적이라는 의미는 차이를 통해 의미를

45) 윤찬중, 「한국 문화원형 3D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4쪽.



생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소통한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소통될 수 없다. 의미를 새롭게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다.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차이화를 통해 반복되는 우리의 이야기이다. 먼저 <원턴강본푸리>는 무(巫)를 세습하는 입무의례(入巫儀禮)인 강신제(降神祭)의 내림굿에서 구연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서사무가이다. 또한 이 서사무가의 초점대상인 옥황의 신녀 ‘오늘’이 인간계에 강림한다는 것은 강신제(降神祭)의 일반적 원리를 전제할 때, ‘오늘’이라는 신을 접한 제주(祭主)를 통해 인간계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발원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는 인간과 신이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역설적 세계의 소통방식이다.

한편,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원천강’에서 학 ‘야아’, 그리고 보라색 여의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오늘’이 여의주를 탐내는 사람들의 탐욕으로 여의주와 함께 이계의 물으로 떠밀려왔다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그리고 이무기 등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원천강으로 돌아가 학 ‘야아’와 재회한다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은 탈욕적이면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에게 도움을 주었던 ‘매일’, 연꽃나무, ‘구름’ 소년, 그리고 이무기 등은 ‘오늘’과 접촉함으로써 허상과 탐욕,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소망을 성취한다. ‘오늘’은 결국 그들에게 불가시적인 세계으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자신은 새롭게 산다. 그래서 <오늘이>는 인간적 가치의 기원과 현대의 과학적 신화를 꼼꼼 회의하게 한다.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차이화는 결국 이야기가 소통하는 방식이자 이야기가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시공을 건너 애니메이션 <오늘이>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소통하기를 욕망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며, 신화적 이야기를 빌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옛

이야기를 콘텐츠화하는 일의 일차적 의의는 나의 표상과 관념에서 벗어나 ‘나’를 차이 짓게 만드는 힘과 의미를 생성하는 데 있을 것이다.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에서 약 16분 20여 초의 애니메이션 <오늘 이> 새롭게 살아 우리를 더욱 낯설게 하고 불가시적인 세계로 길을 열어주어 나를,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고, 살지 않았던 곳에 살게 하듯,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동일자의 반복을 넘어 옛이야기를, 기존의 가치 증식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다양한 징후들, 그 사건들과 배치하여 인간주의적 기획을 추동할 때, 비로소 구비문학의 콘텐츠화는 살 수 있다. 문화콘텐츠마저 자본의 증식이라는 탐욕의 논리 안에 가둘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문화콘텐츠로써 자본주의의 폭력적 신화를, 그 ‘비-인간적’이고 ‘비-가치적’인 힘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의 정당성이나 자명성을 철저하게 깨뜨려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접수일 : 2010.12.10 / 심사일 : 2011.01.10 / 심사완료일 : 2010.01.15

K C I

### <참고 문헌>

- 赤松智城·秋葉 隆 共編, 「원턴강본풀리」, 『朝鮮巫俗의 研究 上』, 沈雨星 옮김, 東文選, 1991.
-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 <오늘이>, 문공사, 2004.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제20집, 2010.
- 민진영, 「질 들뢰즈의 문학론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진은영, 「니체와 차이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洪泰漢, 「韓國 敍事巫歌의 類型 分類 研究」, 『高鳳論集』第18輯, 1996.
- 박경희,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스타일 체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기수, 「애니메이션 서사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홍은주, 「디지털 작업 과정으로 표현되어진 파스텔화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윤희,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매혹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윤찬중, 「한국 문화원형 3D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玄容駿, 『濟州道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 서대석, 「한국신화의 비교연구」,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村山智順, 『朝鮮의 鬼神』, 金禧慶 옮김, 東文選, 1990.
-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82.
-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研究』, 集文堂, 1987.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亦樂, 2001.
-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4.
-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 황선길, 『애니메이션의 이해』, 디자인하우스, 2000.
- 존 헬라스로저 맨벨, 『애니메이션의 이론과 실제』, 이일범 역, 신아사, 2000.

K C I

##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Shaman Narrative Song <Wontyeongangbonfuri> and the Animation <O-Neul-e> / Lee Jongh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aning of "Wontyeongangbonfuri" by Bak Bong-chun and "O-Neul-e", the animation by Yi Seong-gang differentiating "Wontyeongangbonfuri" by comparative study on both works in the aspects of narrative communication. It was also aimed to find out the meaning of creation of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 oral literature of Korea as well as the meaning of narrative features of both works above by comparative study on the shaman narrative song "Wontyeongangbonfuri" and the animation "O-Neul-e".

First, "Wontyeongangbonfuri" by Bak Bong-chun has macroscopic structure in which a "Onal" went to "Woncheon river" in a fairy land, met his parents who governed Woncheon river as accepting the missionary duty from the Great Jade Emperor and implemented the order from the Great Jade Emperor as the follower of the Great Jade Emperor. In this aspect, "Wontyeongangbonfuri" is the shaman narrative song with high probability which "Wontyeongangbonfuri" was orally passed down from the invocatory rite of a spiritualistic medium of Gangsinje, the rite to be a shaman. Furthermore, the fact that "Onal", the follower of the Great Jade Emperor, the heroine of this shaman narrative song, descended to the terrestrial world implicitly meant the wish for repelling disasters and hoping good fortune in the terrestrial world through "Onal", the master of religious rite who met the god, on the assump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Gangsinje. It is the communication approach in the paradoxical world where human beings and gods tried to co-exist in the ha.

Meanwhile, the animation "O-Neul-e" comprised the narrative structure which "O-Neul-e" who lived happily with "Ya-a", the crane, and the purple cintamani in the island in the middle of the sea, "Woncheon river", descended to the water

in the terrestrial world with the cintamani because of the greed of people who coveted the cintamani, returned to the hometown, "Woncheon river" with the help from Maeil, Lotus Tree, Cloud Boy and Monster Serpent and met the crane "Ya-a" again. "I"O-Neul-e was never afraid of something strange and unfamiliar withted any greed. Maeil, Lotus Tree, Cloud Boy and Monster Serpent which helped "IO-Neul-e" made their wish come true-a" being free from illusion, greed aovetbsession by meeting "O-Neul-e". Then, "O-Neul-e" makes us meditate the origin of human value and scientific myth of the modern times.

The differentiation discussed above is based on the structure with which(with whom) an event is systemized. "Wontyeongangbonfuri", the song praying the good fortune and repelling of disasters in the terrestrial world by systemizing with an exorcism and ultimately communicating with the gods, and the media art "O-Neul-e" trying to create the 'humanistic' value and entertainment by differentiating the original work and systemizing with audience-oriented or reader-oriented animation created different meaning and value. "O-Neul-e", the animation of about 16 minutes and 20 seconds, is regenerated from the shaman narrative song "Wontyeongangbonfuri" led by a shaman who tried to make human beings meet a god and to make human beings and a god alive and finally made free from own emblem or concept by opening the way to something more strange and invisible. It will be the primary meaning in creating new contents with old stories to make our old stories abstract for destratification and deformatization by arranging our old stories with all existence on this land, nature, animal, the sister moon, the brother sun, birds on the field and those who are poor and exploited beyond the repetition of the same.

Key words: Oral Literature, "Wontyeongangbonfuri", Animation, "O-Neul-e", Narrative Communication, Original, Simulacra, Differentiation, Cultural Contents